

† 바다교회 공동체란?

저희 바다교회 공동체는 복음서의 정신에 따라서,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인류역사의 현장에서 재해석 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모임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삶이 교회의 계단에서 계의적으로 해석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또한 공장에서, 거리에서, 3세계의 밀집에서, 전쟁터에서, 부패한 정치가 있는 사회속에서 해석되고 실천되는 복음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허를 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두세사람이 한마음으로 모인 곳은, 비록 누추한 공목, 공장안, 갑옷 그 어느 곳이건 그곳이 교회요, 이들의 삶이 예배임을 믿습니다.

우리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제의와 예언적 삶, 영성과 세속성, 초월성과 역사성을 하나로 일치시킨 사건임을 고백하고, 이 일치를 고무하는 신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계에 복러운 화해의 덕목을 추구합니다. 부자와 빈자,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 남자와 여자, 이념과 이념으로 대립하는 세계에서 인간들의 이해관계로 비롯된 증오의 정당성을 거부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자기비림의 사랑만이 화해를 이룩하는 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공동체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임입니다. 인간의 허의 가장 현상적인 모습은 욕망이며, 이 욕망에서의 해방, 자기비림을 강조하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생활의 덕목으로 겸소, 절제, 정약을 지향합니다.

우리공동체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기독교단체와 건강한 연대와 협조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파나 주의에도 소속하지 아니하며, 무소속이라는 주의도 만들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또한 우리는 역인 기독교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신도의 외적인 생활을 따라 신앙을 단련하고 심판하지 않으며, 고의적인 거짓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배척하지 않는 한 모든성경의 기독교자가 함께 공존하며 독려하는 생활을 추구합니다.

바다교회 공동체는 농촌공동체(평화의 의지), 도시공동체(꽃들에게 희망을), 3세계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농촌공동체는 세속 사회속에서 수난 당하는 사람들이 자연속에서 영적이고 육체적인 휴식을 누리는 피난처입니다. 도시공동체는 도시가 반영하는 사회악과 싸우는 전투적인 공동체입니다. 3세계공동체는 가난과 부, 인간의 허, 전쟁, 환경파괴 등 삶의 윤리가 한 국가와 단체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우리의 허는 전인류적 차원에서 고백되고 속죄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사람의 노동에 대한 적당한 보상과 평등한 누림에 대해 명명한 하나님의 의지의 실천을 지향합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는 90년 5월 구로공단에서 공부방사업을 첫 시작으로 도시공동체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시공동체 두번째 사업으로, 92년 11월 부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년은 3세계공동체 사업의 실천을 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전 하여 변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공동체를 실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함께 경험하고 나눔을 가지기를 원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엡2:14)

바다교회도시공동체 「꽃들에게 희망을」, 통권8호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소식

제2호

1994년 5월 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3동 148-40 정환빌딩5층 ☎ 02)859-0430

〇〇〇

우리들의 땅에서 수난받는 그리스도!

늘 만년설을 덮고 있는 히말리아의 봉우리들이 자연의 신비를 드리운 채 아래를 굽어보고 있는 땅! 산의 나라 नेपाल은 세계의 꼭대기를 차지하고, 온 대지의 평화로움과 한기함의 어머니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올해 32살인 키산씨는 고향 네팔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한해 농사를 지어도 그의 가족은 먹을 양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온 가족이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보다 큰 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키산씨는 해외노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친척과 온 동네를 뒤지다 시피하여 빚을 얻어 모험을 감행 하였습니다. 한국에 온 키산씨는 '불법' 체류자란 이유때문에,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하루 하루를 고된 노동속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자신이 땅을 갈아낸 만큼의 땅이 자꾸만 불어나, 가족의 양식을 풍성하게 하는 꿈이 무럭 무럭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94년 2월 성님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그만 팔이 두번이나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팔이 첫번 부러진 것은, 일 공장의 한국노동자에 의해서였습니다. 시간만 나면 찾아와서 때리기도 하고 놀려대던 그사람은, 그날도 휴식을 하며 앉아 있는 그의 다리를 발로 차면서, "야 새끼야" 라고 놀렸습니다. 키산씨는 참지 못하고 이번에는 그만, "너가 새끼야" 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들은 그 한국노동자는 쇠파이프를 들어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때 이를 막기 위해 쳐들었던 팔이 부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한후 회사로 돌아온 그에게 사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 회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일을 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에(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는 어쩔수 없이 다친 팔로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기부스를 하고 있던 그의 팔은 다시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팔이 부러진 후 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그의 팔을 부러뜨린 한국인이 사고를 하기는 커녕, "그 새끼는 꼭! 죽여버려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못해서 임금도 받을 수 없었던 그는 아픈 상처만 안은채 아무 대책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수한 수술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가 이유를 마련하고 부과하는 높은 벌금때문에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안갈 수도 없는 마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국경도, 법도 지킬 수 없는 수난받는 이웃들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땅에 발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운을 거머쥔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땅의 주인들이 가진 욕심때문에 망가진 몸과 영혼을 얻은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큰 빚을 내어 왔던 한 중국동포가, 귀국길에서 임금으로 변돈을 한국정부에 다 빼앗긴 후, 홍콩에서 북경으로 가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슬픈사연도 있습니다. 동서남아의 수개국에는 한국에서 산재를 당하고, 아무 보상이 없이 강제 출국을 당하여 눈물로 실아가는 사람들도 수천명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들의 땅에서 수난 받았던, 수난 받고있는 그리스도들입니다. 우리땅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는 고운 옷 한벌, 좋은 집 한채에 깃들어 있는 한국의 경제력, 이속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들의 님! 그리스도의 눈물과 피가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〇〇〇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화대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나니” (사1:16-17)

⊕ 외국인산재노동자 "양심의 행진" 행사 소식 ⊕

1호 회지에서 밝힌대로 '피난처'에서는 외국인 산재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변화를 새해의 첫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경 산재 외국인노동자 열네분을 모아서 산재자 모임을 만들고, 1개월 동안 교계의 몇몇 어른들을 접촉하였습니다. 이때 교회가 신앙고백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 상황을 거론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흔쾌히 이에 동의 하였고, 따라서 금년 1월 10일부터 2월 7일 까지 1달 동안 경실련에서 '양심의 행진' 이라는 이름으로, 호소농성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Tv와 신문, 잡지 등에서, 연일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다루어 지서 여러분들도 이를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 행진을 하는 동안 78개의 교회 및 각 사회단체와 수백명의 방문객들이 현장을 방문 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정부는 2월 7일 외국인노동자를 한국경제의 필요에 의해서 목인한 채 고용 했음에도, 비인간적으로 대우했던 것은 인도적 처사에 어긋난 것 이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3년간 소급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에는 노동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갑골, 강제 노동, 폭행,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등)에 대한 감독과 조치 부분은 제외되어 아직도 큰 과제가 남은 셈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망, 산재당한 외국인들은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피난처에서는 이 행사에 참여했던 산재자들에 대한 보상금 수령과, 그동안 산재를 당했으나 치료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한 재치료를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94년도 두번째 계획 ⊕

『귀향한 외국인산재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운동』

올해의 다음 계획으로, 산재를 당하고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법무부에서 부과한 벌금까지 내고, 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들에 대한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없이 강제귀국 당해야 하는 사람들

우리 정부는 금년 2월7일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침 발표때, 3년소급적용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한번 한국에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명부)를 작성해 놓고,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출국한 외국인산재자나 사망자 가족의 경우, 보상받을 길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1.3%로 세계에서 가장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산재율은 3%로 집계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거의 99%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통계를 토대로 외국인 산재노동자 수를 산출해 보면 (현재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는 숫자를 10만으로 잡고 있음) 작년 한해만 해도 3000여명이 산재로 인해 사고, 사망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은 무허가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의 인원, 이들이 이곳에서 겪고 있는 문화적 충격(언어, 경험, 습관, 기후, 노동강도)등을 감안 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주들은 이들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산재를 당하면 밀린 임금이나 치료도 안해준 채, 이들을 본국으로 출국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함께 목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조차도 출입국관리소는 벌금을 과도하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손목이 잘린 채 보상을 못받은 내팔이나, 입산부로 수개월동안 일을 했으나 임금도 못받은 만삭이 된 필리핀인 여성(아팔리아씨) 같은 사람들이 그 한 예 입니다. 『“우리 회사 주변의 많은 공장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다리가 잘리고, 어깨가 잘렸었다” “그런데 그 공장의 사장들은 모두다 치료도 제대로 안해주고 본국으로 출국을 시켜버렸다” “그러나 나는 치료를 해주고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니 양심적인 사람이다” “산재당한 외국인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외화 유출이 안되니 애국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이냐?”』 이 말들은 우리가 산재당한 외국인을 데리고 공장을 방문했을때 한 사장님이 우리에게 한 말 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말을 가는 곳 마다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상처를 안고 본국으로 강제 귀국 당하는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입국한 동서남아 노동자들의 경우 회교권과 원두교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산재당한 사람은 외적인 신체장애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받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성이 일하는 것을 창녀보다 더 천하게 여기는 문화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과부의 경우는 이중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일거리가 없어서 음식을 벌여먹기가 힘겨운 경제상황에서, 산재자나 어린아이와 부인만 남겨놓고 죽은 사망자 가족의 경우는 살아가기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왜 굳이 국외에 나간 사람들에게 까지? 라고 묻는 형제들에게

귀향한 이들에게 산재보상금 찾아주어야 한다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국외에 이미 나가버린 외국인들에게 까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사람을 가르기 시작하면, 여기서 부터 모든가름(빈부, 국적, 종교, 남녀, 피부색, 신분 등에 의한)은 정당화 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들 조차도 이렇게 해서 정당화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장 희소가치가 있는 사람들, 가장 기회가 없고, 가장 밀바다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이웃들을 일으켜 세워준다면,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들 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도 저절로 한층 더 상승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외에 나가버린 사람들 까지도 구제를 받았는데, 하물며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 당연히...” 라는 반대의 대답이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어야 겠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마음의 사과도 받지 못하고 귀향해 버린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곧 우리땅에 있는 가장 아픈 사람들을 세우는 일 입니다.

나가는 선교에서 잘 맞이해서 보내는 선교를 생각할때

민족윤리라는 측면에서 볼때, 일제식민 시대를 경험하면서 겪었던, 정신대 문제를 놓고 일본을 나무라는 우리가, 역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에 대한 거대한 장애물이 생겨났음을 의미 합니다. 불과 1년동안, 동서남아 지역의 3000곳에 인생에 대한 희망을 빼앗긴 채, 한국을 분노와 원망으로 바라보는 곳이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우리나라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구타당했거나, 사장에게 벌여놓은 돈을 횡령당하거나, 임금을 못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런 처지를 당하고도 출국 할때는 정부가 부과하는 무거운 벌금을 내야 했기에 분을 품고 나갔던 사람들은 전혀 배제된 숫자 입니다. 한 예를들면, 93년 11월 1천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장에서 구타당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760명(76%)에 달했습니다. 3천곳이란 이런 것을 뺀, 가장 확실하게 심각한 상황을 당한, 가장 최소한의 통계숫자일 뿐 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단 일년만에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치유하는데는 한세대가 지나야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가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잘 맞이해서 보내는 선교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선교사가 해외에서 선교를 잘해도, 국내에 와서 나쁜 경험을 한 외국인들이 자국에 돌아가 한국을 악선전 한다면, 그동안 일구어 놓

은 발은 모두 땅가지고 밭것입니다. 지난 주일(94.5.1일) 네팔노동자협회 대표들과 네팔 현지에 이미 귀국한 산재자 모집을 위한 저의 네팔방문에 대해 협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대표 중 한명이 그곳에서의 저의 안전문제에 대해 거론을 하였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는 네팔인들이 자기들끼리 다닐때 자주 하는 말이 "한국놈 새끼들 네팔에 오기만 하면 다 때려 죽여버린다" 는 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 네팔노동자 협회에서 보호자 한사람을 붙이고, 미리 고국의 신문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한번 땅가지 밭을 회생시키는 것은 수십곱절이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민족공동체의 죄를 짊어질 줄 아는 교회

이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음으로 50년(희년)이 다 되도록 형제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를 향해 무기를 쏘기를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민족은 지금까지도 민족내부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마당에 이방에서 온 나그네들을, 값싼노동력으로만 여겨서 학대 한다면, 이 민족이 쌓아가는 마몬신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민족의 윤리가 안 밖으로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를 온 인류에 선포하고 가르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한국교회의 꿈도 상실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민족공동체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짊어내는 제사장 역할을 속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대안

1. 이번 계획의 대상이 된 산재당한 사람들은 법의 유효시한이 지나기 전에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피난처에서는 이 일을 현재 해야 할 가장 급박한 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귀향한 외국인산재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을 교회를 중심으로 회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별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정부가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보상금을 송금조치 하도록 촉구한다. - 한 예로 일본의 경우도 자국에서 이와 같은 처지를 당한 이들에게 송금 조치를 한 일이 있음.
3. 정부가 송금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인들의 재입국을 허용토록 조치한다.
4. 송금 및 재입국과정에서 위의 '모임'이 민간단체로서 적절한 감시와 협조활동 전개.
5. 두종류의 조치가 상실 되었을때, 국내외 교회가 일치하여 한국정부에 건강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
6. 한국교회가 자체 모금하여 해결하는 방안.
7. 장기적 대안으로 - 이 사업과 병행하여 해당 국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재활공동체를 구성하고 조력하는 활동.

피난처의 일반 상황

피난처는 1.2월의 "양심의 행진" 사역 이후, 이 행사에 참여했던 14명의 외국인 산재노동자들의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일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단지 참가자 중 임금 채불을 당했던, 네팔인 형제 3분이 아직 아직도 임금을 받을 희망이 없게 되어서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피난처는 개교회와 여러선교단체에 외국인노동자를 연결해 주는 접촉점 역할을 해 왔는데, 이 일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많은 방문인원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피난처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외국인 사역을 시작하려는 교회, 양측에 다 효과적인 일이 되고 있는 듯 여겨 집니다.

4월 16일 피난처가 새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지난번 살았던 곳에서는 입주 초기부터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이 들러거린다면, 1년동안 계속해서 나가라는 압박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이번 이사 과정에도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일' 이라고 사전에 이야기 하고, 신도림 전철역 근처의 한곳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 5일전 주인이 검은 피부색의 사람들은 안된다고,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또 한 차례의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작년에 재정적자가 심해서 이번 이사때는 보증금 3백만원이 저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국 외국인노동자 협회 대표들과 의논하여 매월 지불하는 월세 보증금을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새주소는:구로구 가리봉3동 148-40 정환빌딩 5층, 전화:859-0430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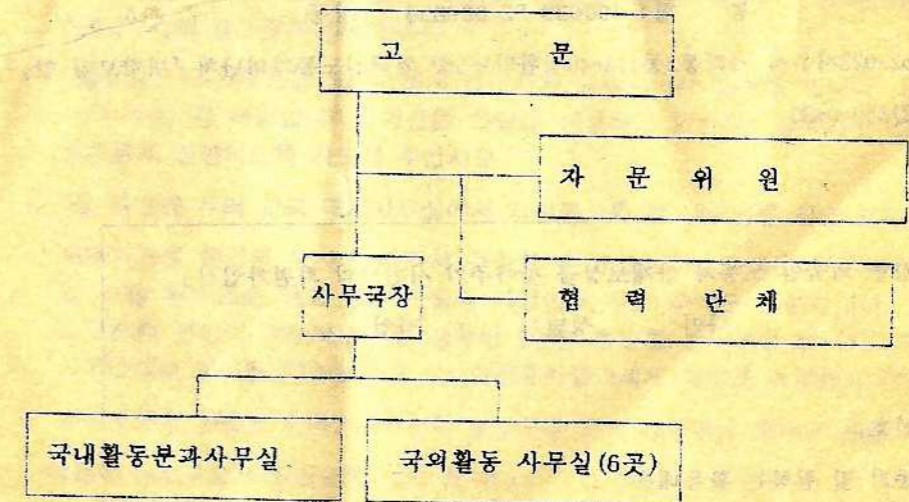
중국노동자 센터가 새로 개설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하고 있는 외국 인노동자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국적이 중국교포입니다. 이들은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3분의 1 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충을 상담해 줄 곳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오전근 선생님이 혼자서 가정생계를 희생해가며 근 3년 동안 고생을 해왔습니다.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해 오다가, 이번에 피난처와 합동으로 서울역 근방(용신고등학교 정문)에 센터를 개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더욱 일이 바빠 지리라 예상됩니다. 정식 개소식은 5월 1에 하였습니다. 중국교포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별지 1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 주기 시민모임』 활동내용

1. 귀향한 외국인 산재노동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국외활동(활동국가: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 필리핀 등...)
2. 한국정부에 귀향 산재노동자 보상금 송금 및 재입국 허용을 위한 촉구활동
3. 재입국 필요시 이들을 위한 숙식제공 활동
4. 보상절차에 대한 안내 및 감시활동
5. 활동회원 모집 및 기금모금 활동
6. 인종차별 반대와 외국인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의식개혁 활동
7. 가입회원들에 대한 '제3세계 찾기 여행' 주선활동

활동조직



*국내활동분과 - 총괄실(업무조정 및 국외사무실과 연락업무)
지회회원모임
재입국자 생활담당 부서

●국의활동사무실 - 네팔,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등 5개국가에 설치
 주요업무:산재자 모집활동, 현재주재 한국대사관 접촉, 전
 반적인 산재보상 절차(송금, 보상누락자 등)에 대한 민간감
 시활동, 국외교회 및 선교단체와 연대활동, 국제노동단체와
 의 연대활동, 현지인들의 반한실태 조사,
 재입국 절차업무(필요시)

별지 2

☞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원하시는 분은 개인 및 단체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이 되어서

- 6개월회비 5000원 이상을 납부해 주십시오
- 정부에 외국인산재노동자 보상금 송금 및 재입국 허용을 위한 촉구활동에 참여
- 재입국자를 가정에 초대 '함께 생활하는 활동'에 참여(1-3개월간)
- 국외에서의 외국인산재노동자 모집 활동(5개국)에 참여
- 프로그램 종료후 '3세계 찾기 매뉴얼여행' 참여
- 회원확보 및 기금모금 활동에 참여
- 기타, 사무실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계좌번호 국민은행: 759-01-0003-515 예금주(조명숙)

조흥은행: 963-04-007950 상동

농협: 100039-52-009856 상동

주 소:152-023서울시 가리봉3동148-40정환빌딩5층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귀향모임 앞」

전 화:(02)859-0430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회원가입서」

이름: 나이: 성별: 직업:

주소:

전화번호:

가입동기 및 원하는 활동내용: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가입서를 적어 보내 주시거나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활동국가 사무실(5개국 6곳) - 중국:연변, 홍콩강성 필리핀:마닐라
 방글라데시:다카 네팔:카트만두, 스리랑카, 파키스탄은 임시사무실 운영



☞ 광고 - 기도와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1. 두번째 프로그램의 국외활동을 위한 재정만도 최소 3200만원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의 항목별 지원을 요청합니다.
 ●국의6개사무실 유지비:월10만원 * 6 = 월60만 * 12개월 = 720만원
 ●실무자항공권료:왕복80만원(서울-네팔) * 3회 = 240만원. 홍콩-홍콩강성(열차), 방
 곡- 필리핀(비행기), 필리핀-홍콩(비행기), 중국위해-인천(배2등칸)간 교통비 등은
 예비비에 별도포함
 ●통신료:월4만 * 7개사무실 = 28만원 * 12개월 = 304만원
 ●실무자 국외 숙식 및 활동비:월10만원 * 12개월 = 120만 * 2명 = 240만원.
 ●산재자재입국필요시 편도 항공권료(네팔, 방글라데시-서울):30명분 * 50만원
 =1500만원
 ●예비비:200만원(별도교통비, 홍콩에서 산재자30명 숙식비 및 외신기자회견비, 기타잡
 비)
 ●총계:32,040,000원(재입국불필요시 - 1500만원)
2. 이 회보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권고하여 우리 민족공동체의 죄를 속
 죄하는 일에 동참토록 권유합니다.
3. 5월말경 국외사무실을 열기위해서 실무자가 국외로 1차 출국을 합니다. 5개국을 들
 가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기간은 한달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무자의 건강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6월 중순경 부터 각국 국외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할 내국인을 찾습니다. 현지에서
 체류기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숙식은 현지사무실에서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지인들의 가정에서 무료 숙박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항
 공권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월 생활비 5만원 정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친구,
 가족단위로 참가도 가능합니다. 94 여름휴가를 3세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5. 우리정부가 귀향한 외국인산재자의 보상금을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송금하거나,
 이들의 재입국을 허용하도록 기도 합니다.
6. 자신이 알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모임 실무자를 초청하거나 소개
 토록하여, 이 모임이 하는 일에 관하여 듣고, 회원으로 참여 하도록 권고 합니다.
7. 가족 단위별로 이 모임의 후원 회원이 됩시다.